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성경: 신명기 31장 16-21절

Tag: 역사 >History, the Present, Future

16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신31:16-21)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나, 다만 스스로 영원한 존재는 아님.

(전기와 전구; 전구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음)

왜냐면 사람 스스로에게는 영원한 생명력이 없다. 사람에게는 프시

케만 있다. (네페쉬(헬;프시케)는 생식을 통해서만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음. 영생하는 존재란 성령을 받은 존재로 루아흐(헬;프뉴마)라고 함.)

즉 사람의 영원성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함.

즉 사람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임.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

그러나 더 현실적인 설명은 사람은 시간적인 존재(영원성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 정확하게는 순간적인 존재.

현재는 순간 과거로 변하고 미래는 순간 현재가 된다.

순간에 대한 감각은 사실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내가 실존하고 있다는 감각만 가능하다.

또 과거나 미래도 며칠 전이나 며칠 후를 기억해 내거나 예상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한달 전이나 한달 후를 감지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기억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며 미래 감각도 안개 속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십년 전이나 몇백년 전의 일들은 오로지 교육이나 선험적 감각을 통해서만 내게 임하게 된다. (요즘 이 선험적 감각을 이용해서 도깨비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꾸며내고 있다. 선험적 지식의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이므로 따로 다루어야 함.)

결국 교육을 통해서 선험적 감각이 깨어난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원에 잇대어 자신의 영원성을 감각하게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요즘에는 사관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단순히 과거 역사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사관의 차이가 왜곡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관으로 인한 역사교육은 제대로

된 선협감각을 일깨울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다시금 거짓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모래밭에서 철가루를 찾듯이 하면 결국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는다.)

16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의 풍습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우상을 음란하게 따르게 될 것을 예견하셨다. 그리고 쉽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길 것이라 말씀하심.

17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별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숨기신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고 안계신게 아님.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태양을 부정하면 손해. 하나님은 죄인에게 까칠하신 분이시다. 다만 회개의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은총이다.

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결국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재앙과 환란 가운데 빠진다. 질병과 실패와 파산과 다툼과 미움이 영킨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아야

되고, 닦쳤더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빠져 나와야 한다. 천동설 신앙은 어리석다. 지동설 신앙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40년 광야생활의 효과이다. 40년 동안 잇대어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과 이전 광야생활이 비교된다.

(이것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 타민족은 결코 자신들의 과거의 영적 삶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셨다. 노래는 기억을 끌어올리는 두레박 같은 역할을 한다. 노래를 하면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고 즉시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된다.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인생이란, 결국 돌아온 탕자인가? 인간의 역사는 결국 사사기의 역사에 불과한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역사개입으로 인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었다.

복음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개인과 나라는 부흥을 하며 도약을 하며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해 낸다.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개인과 나라는 변하고 선진국이 되며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나눠준다. 세계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